백두산 2

6.15공동선언 2돌 기념 특집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이남민중은 찬란한 태양의 빛발 아래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새세기의 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55시간에 분단 55년의 긴긴세월 이루지 못한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는 영원불멸할 대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은 우리 남녘민중이 꿈결에도 그리던 통일의 태양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옵고 특출한 위인적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김정일**장군 만세!≫를 목청껏 외친 기쁨과 감격의 나날이였으며 그때의 영광과 환희는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차넘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웅지와 무비의 담력, 애국애족의 넓은 도량과 높은 정치실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적 시기에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통일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불패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고 승리해 가는 장엄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2년동안 조국통일운동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력으로 전진하고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승장구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으며 남녘민중들 속에서는 ≪**김정일**숭배열풍≫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민족주체적인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기운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습니다.

남과 북, 해외에서 민족자주통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 6.15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비상히 촉진되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고 통일운동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은 전적으로 위대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운명의 구원자, 수호자이시며 조국통일역사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 남녘의 각계민중은 현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위인중의 위인을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자긍심에 넘쳐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패의 선군기치를 높이 드시고 7천만 겨레를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국통일도 문제없고 강성민족으로 복락할 그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남녘민중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절대적인 신념이고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한민전≫과 통일운동대오를 위대한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가는 열혈의 충신, 신념의 동지, 결사관철자들의 대오로 튼튼히 다져나가며 온 남녘땅에 **김정일**장군님 숭배열풍이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대북압살책동과 분단고착화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있기에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21세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기, 통일되고 번영하는 **김정일**세기로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행복과 운명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처럼 믿고 살기에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최대의 기쁨이고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간절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91(2002)년 6월 15일 서울

민족대단결에 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통일의 태양따라 6.15공동선언을 기어이 실현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이 땅의 애국민중은 민족자주의 궤도에서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월 15일은 자주통일운동사에 새장을 열어놓은 역사의 날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밝힌 등대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이 있으므로 해 민족분열의 역사로 가슴 아픈 연륜을 새겨온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는 세계의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와 불면불휴의 노고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비상한 예지와 식견으로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비범한 영도력과 애국애족의 의지로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가시며 위인의 풍모로 우리 민중을 한품에 안아 통일위업수행에로 이끌어가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장군님께서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통일위업에 기여한 이 땅의 한 기업가의 영전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셨고 여러 인사들에게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선물을 보내주셨으며 각계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온 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고 장군님 숭배심은 온 강토에 굽이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만난을 무릅 쓰고 조국을 통일해서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의 주춧돌을 마련하신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이 어려있고 주석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는 조국통일의 필승의 무기입니다.

온 민족이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들고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외세가 우리 민족의 힘찬 통일진군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운운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일도 예상사로 여기는 것은 미국의 체질화된 파렴치성의 표현이고 치유될 수 없는 악**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6.15공동선언은 이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의 침략적 기도에 언제나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투쟁을 강화해 이 땅에서 미군철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국이나 특정한 당파나 민족구성원 누구나 할 것없이 통일에 이로운 일만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정신을 짓밟고 외세의 ****에 매달려 분열을 지속시키고저 온갖 배족적 행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동족도 안중에 없이 집권욕에 광분하고 있는 반민족반통일세력을 반대해 견결히 투쟁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철석같은 통일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통일에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날을 확신하고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소임을 다하여 통일의 성공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언제나 낙관적입니다.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달리는 우리 민중의 통일투쟁을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은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이 관철해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갈 그날을 앞당겨야 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6월 13~15일

6.15공동선언관철투쟁에 총분기하자

오늘 우리 7천만겨레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2년전 6월 7천만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채택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3대헌장을 구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이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를 담은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 놓았다.공동선언발표후 남과 북은 그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결과 이산가족의 눈물겨운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남북군사당국자간의 회담도 성사되었다.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온 세계를 감동시킨 단일기아래의 남북공동 입장이 있었다.남북간에는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반세기여의 분단사를 끝장내고 화합과 단결의 창창한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세 앞에 한반도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미국은 남과 북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해 나섰고 외세에 빌붙어 먹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들은 이북≪주적≫론과 ≪한미공조강화≫를 운운하며 남북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6.15공동선언방해책동도 우리 민족의 거세찬 자주통일의 흐름을 멈춰세울 수 없다. 남측특사의 방북합의문발표와 박근혜여사의 방북성과 등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활력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올해는 공동선언으로 열린 통일정세가 상승하는가 아니면 이 선언이 휴짓조각으로 되어 버리는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때문에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5월부터 7.4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6.15공동선언 고수이행과 남북관계개선의 진전, 통일운동활성화,통일장애요인제거 등의 통일운동을 각방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이며 그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다.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남과 북,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지와 열망을 투쟁으로 승화시켜 올해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는데 조국통일의 길이 있다.

우리 민족의 넋을 지니고 피가 뛰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가로막아 나서는 것이 매국이며 민족반역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6.15공동선언이행의 최대의 방해자,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현재도 민족자주통일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미국 부시정권이다.또한 미국에 빌붙어먹는 대통령병환자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들도 기득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반미,반이회창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조직을 정비강화하고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광범위한 실천운동을 계속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피끓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온 한총련의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도 선봉에 서서 피와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각계층 애국민중은 총분기하여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운동에 총매진하자.

구국전선 사설 주체91, 6월 15일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뜨겁게 맞이하는 노래를 더욱 높이게 되는데요.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어 6.15공동선언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경이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건데요.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고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물론이고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까지도 6.15남북공동선언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돼서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로 보느냐 하는 걸 얘길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6.15남북공동선언이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걸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성사된 그 자체를 놓고서 그걸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사변이 있은 후부터 흡수통일을 제창해온 반통일세력은 미국의 비호하에 날이 갈수록 그걸 실현해보려고 광분했었는데요. 되돌아보면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구소련이 붕괴된 후부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이북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연이어 가해지는 자연재해는 식량난까지 덮씌였습니다. 하지만 이북은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사회자 : 단독으로 말이죠.

김현규 : 그렇죠. 이북의 이런 모습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국제반동들은 핵위기니 미사일위기니 또 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 등 여러 사건들을 조작해 갖고 이북을 군사경제적으로 압살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것도 부족해서 ≪5.27작전≫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해놓고 그 실행을 위해 광분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북은 말그대로 사상초유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됐었는데요. 정말 남들같으면 열번 백번이라도 주저앉을 그런 악조건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북의 상황을 놓고 서방언론매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북의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했고 진보적 민중들은 이북의 운명을 놓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북이 이처럼 난관을 겪을 때를 호기에로 여긴 이남의 반통일세력은 더욱더 흡수통일을 떠들면서 햇볕정책으로 이북을 개혁, 개방에로 유도해서 흡수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분주탕을 피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북은 붕괴되지도 않았고 흡수되지도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강성대국건설을 향해 용약 분기해 나섰던 거죠.

사회자 : 이북이 그러한 기적을 달성하게 된 건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에 기인되는거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인류정치사상 처음인 선군정치를 창제하시고 그걸 능숙하게 활용하셨죠.

그런데 어떠세요. 선군정치는 이민위천의 원리를 구현한 정치방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인데요. 여기서 군사선행은 선군정치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군사를 선행한다는 건 군사를 국사중에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군사를 첫자리에 놓고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혁명군대를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먼저 최정예부대로 만들며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회자 : 선군정치의 본질로 출발해서 선군정치는 철저히 민중을 위하는 정치방식일뿐 아니라 자주를 담보하고 평화를 지키는 정치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활용하시어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정신무장시키셨을 뿐 아니라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들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일신시켰고 현대전에 상응한 무비의 전략적 체계를 백방으로 다져놓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자위적 군사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군대를 단순히 조국의 보위자로서만이 아니라 민중의 행복을 위한 창조자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의 일선에서 간고분투하는 전위부대로 내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영도자의 주위에 똘똘 뭉치게 해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해 놓으셨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고 주체식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시어 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회자 : 1998년 8월 ≪광명성1호≫위성발사를 종신호로해서 이북은 이미 강성대국건설의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실증했고 미국과 일본 등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군사적 대결에서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광명성1호≫위성이 발사됐을 때 미국 CNN TV특파원 마이클 치노이는 인터뷰에서 북조선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통하여 역시 조선민족은 간단치 않은 민족이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이북은 인공위성발사로 해서 단연 세상에서 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서게 됐던 거죠. 사실상 이라크나 유고연방에 대한 군사적 공습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주의적 강권정치시스템은 이북에도 꼭같이 적용됐었는데요. 미국은 핵위기, 미사일위기를 거쳐 군사적 타격의 명분마련에 착안해서 1998년 여름 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이라는 걸 들고나왔다가 본전도 못 찾은체 개코망신을 당하고 물러앉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유고연방에 대한 군사공습이 마무리된 시점인 1999년 6월에는 서해해상에서 무장충돌사건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던거죠.

사회자 : 지하핵시설위기요 서해사건이요 하는 소동들은 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의 서막으로 치루어진 것인데도 미국으로써는 매번 스케줄을 거기까지 잇지 못하고 끊어지게 하곤 했는데요. 이건 유일초대국의 체면을 심히 손상당하게 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김현규 : 그렇죠. 제2 북침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이 공개됐을 때 이에 대해서 이북은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 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위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미국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움츠러들고 말았었습니다.

사회자 : 현실적으로나 가상적으로나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이북과의 군사적 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미국으로서는 더욱더 쩔쩔 맸다고 봅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북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미국은 이북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지난 수십년간 가해온 적성국 무역법과 그리고 수출행정관리법, 국방행정법에 따르는 일련의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걸 공식발표했었습니다.

사회자 : 그때 세계는 그걸 하나의 국제정치사변 차원에서 다루며 법석 끓고 있을 때 이북의 반응은 너무도 당당하고 고압적이였죠.

김현규 : 그렇죠.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북은 그것이 1994년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에서 지닌 의무사항에 따르는 이행조치로써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나머지 제재조치도 해제하는 것으로 신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완전 철회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한국≫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사회자 : 통쾌한 답변인데요. 그때 유럽의 한 통신이 평한 내용 또한 가관이였었는데요. 이렇게 평했었죠. ≪요즘 세계무대를 둘러보면 미국을 한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김정일**최고사령관밖에 없다. 그리고보면 **김정일**최고사령관은 무쇠마치이고 클린턴은 가공소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무쇠마치가 미국 소재를 마음대로 두들겨 때려 가공하고 있다≫라구요. 정말 신통한 비유라고 봅니다.

김현규 : 그렇죠. 미국의 체면이 이쯤되니까 이에 부응해서 이남당국자들도 부랴부랴 평양행을 간청했었고 결국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 덕분에 역사적인 남북 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사회자 : 그날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울렁거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만도 6.15남북공동선언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지를 충분히 잘알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좋은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6월 13~15일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2돐을 맞는 뜻 깊은 이 시각 북과 남,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은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개최하고 뜨거운 통일열망과 애국의지를 담아 7천만 온 겨레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온 삼천리강토가 한 없는 격정과 환희로 들끓던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새 세기 자주평화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받아 안은 우리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발걸음을 같이 하며 걸어온 통일애국의 길은 더없이 자랑스럽고 긍지로운것이다.

수많은 북과 남의 동포형제들이 련이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백두산과 한나산,금강산에서 서로서로 얼싸 안고 혈육의 정을 나눈것은 하나된 우리 민족의 미래상을 펼쳐 보인 애국적 장거이다.

사상과 제도,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과 남,해외동포들이 련이어 펼친 통일행사들은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애국의지와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정녕 6.15공동선언이 있어 민족사는 자주평화통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흐르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의밑에 통일된 민족의 래일을 그려 볼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제 통일애국의 열정과 의지로 우리가 걸어 온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더 힘차게 넓혀 나가야 한다.

이 성스러운 민족적위업,애국적위업이 우리 7천만겨레의 가슴을 두드린다.

해내외의 7천만 동포형제들이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애민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더욱 철저히 리행해 나가는데 있다.

－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더욱 높이 들고 나가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며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6.15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하고 귀중히 여기며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위업에 힘과 지혜,열정과 노력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리행을 가로 막으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며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는것을 민족사의 확고한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끼리≫,이 대명제를 민족의 생명선으로 만들자!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다.

사상과 리념,정견과 신앙,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너도 나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주역이 되여야 한다.

동족끼리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던 대결시대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배격하고 통일에 장애로 되는 온갖 행위를 단호히 물리치자!

온 겨레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결과 분렬을 더욱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과감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대련합을 더욱 힘 있게 도모해 나가자!

련대련합은 6.15공동선언을 지키는 길이며 여기에 통일조국의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온 민족의 련대련합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여야 한다.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마중 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창창하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의 기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새 세기 가까운 앞날에 자주적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나가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북,남,해외의 동포들은 온 겨레가 우리의 이 애국적인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통일운동에 힘차게 나서리라고 확신한다.

6.15공동선언발표 2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 일동
주체91(2002)년 6월 15일
금강산

축복받은 6.15여!

최학순

고통으로 가슴 타던 분단세월 물리치며
너는 희망으로 밝아왔어라
끊어진 이 나라의 허리를 이으며
너는 겨레소원의 명절로 왔어라
6.15, 6.15여!

환희로 가슴 벅찬 이 날의 축복인듯
하늘도 칠색무지개 펼쳐놓았던가
백두산위인께서 열어주신 하늘길로
무지개 타고 훨훨
이남의 마음들 평양을 찾아갔었네

이날부터였어라
사진으로만 뵈온 장군
7천만이 경모하며 따르는 장군
그분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호탕한 그 웃음소리에
온 이남이 웃은 것이
그분의 환하신 미소로
어둡던 강산이 환해진 것이

하시는 말씀엔 고귀한 진리가 있어
인자하신 풍모엔 어버이정 넘쳐 있어
한없이 따사로운 그품에
내로라던 장관들도 자식처럼 안겨
어리광을 부리며 흉금을 터놓았어라

정녕 이날부터였어라
지옥에서 낙원에로의 길이 열려
승리자의 기폭인양 끝발을 날리며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 북송된 것이
흩어진 가족들의 소망
이산가족상봉이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

예전엔 상상못할 통일의 대회들이
천하절승 금강산에서 펼쳐져
노동자의 통일대축제도 막을 올리고
남북의 인사들 얼싸안고 애국의 단심을 엮고
농민도 인텔리도 한데 어울려
자주통일의 억센 의지 과시한 것이

사랑으로 부르는 6.15여
맹세로 불타오르는 6.15여
꿈처럼 흘러간 너의 두해
축복받은 민족경사의 날을 맞으며
우리는 본다 **김정일**장군님 밝히신
6월의 통일이정표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민족단합대행진을
마침내는 터져오를 통일의 축포아래
남북이 얼싸안고 환희로 들먹일 그날을